즉시 배포용: 2016년 2월 3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ROSSANA ROSADO를 뉴욕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다

Rosado, 종신 공무원이자 뉴욕주 ONA(Office of New Americans)의 설립자인 Cesar Perales의 자리를 승계하다

Perales, 뉴욕주 국무부에서 은퇴하고 Empire State Development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Rossana Rosado를 뉴욕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Rosado씨는 뉴욕주 정부에 많은 지식과 전문적 견해를 제공하였고, 최근까지 거의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페인어 신문인 El Diario의 최초 여성 편집장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Rosado씨는 또한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석학강연자(Distinguished Lecturer)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Rosado씨는 종신 공무원이자 2011년부터 뉴욕주 ONA(Office of New Americans)의 설립자인 Cesar Perales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Rossana Rosado씨는 뉴욕이 맞벌이 가정들을 독려하면서 기회를 늘려주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가진 존경 받는 인텔리전트한 리더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미국 최대 스페인어 신문사의 편집장 겸 발행인에서 사회 재진입 이니셔티브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제작자로서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Rossana씨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ossana씨가 뉴욕주 커뮤니티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 행정부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보다 위대한 대의을 위해 헌신해주신 Cesar Perales의 엄청난 노고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Cesar씨는 뉴욕주가 주창하는 정의, 청렴성, 자존감, 연민 등 모든 것을 구현한 분입니다. 그는 진정 뉴욕 최고의 공무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의 여유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Rossana Rosado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저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사께서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큰 정의, 기호 및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아젠다를 실천하셨고, 그러한 일에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밝고

튼튼한 미래를 위해 소외계층과 사회 취약계층을 끌어안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주이기도 합니다.”

Cesar Peral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뉴욕의 국무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는 제 경력의 최고의 순간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Rosado씨가 El Diario에서 활동하는 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은 이 신문사를 수천 명의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7일 발행 일간 멀티 플랫폼 미디어 브랜드로 탈바꿈시켜놓았습니다. 그러한 추진력과 함께 보여준 열띤 지지 활동으로 이 신문사는 100주년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년, Rosado씨는 Dinkins과 Giuliani 행정부 시절에 몸을 담았던NYC HHC(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에서 대외홍보 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당시 Rosado씨는 미국 최대의 공공병원 시스템의 대외 홍보를 감독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WPIX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였고, 이 때 “Care for Kids” 캠페인에 대한 제작과 감독 활동으로 PSA 시리즈로 에미(Emmy)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Rosado씨는 또한 6년 동안 브롱스와 City Hall를 담당하는 뉴욕시 리포터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Peabody 언론상(Peabody Award for Journalism), 뉴욕주 Broadcaster’s Award, New York Women’s Agenda의 Star Award를 포함해 다수의 상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Fortune Society와 Exodus Transitional Community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이자 지지자입니다. 그녀는 Sing Sing 및 Otisville 교정시설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 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2014년 7월부터 주지사의 사회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Council on Reentry and Reintegration)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Cesar A. Perales 국무장관은 2011년부터 주지사에 대한 정책 관련 비서 겸 수석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였습니다. 22년의 공직 생활 동안 Perales는 미국 HHS 차관, 뉴욕주 사회복지부 커미셔너, 뉴욕시 부시장을 포함해 정부 최고위직을 역임하였습니다.

Perales씨는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경제개발위원회의 전략적 이행평가팀의 수장으로 주지사의 경제 개발 아젠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Perales 장관은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Empire State Fellows Program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능한 인재를 정부로 데려와 미래 정책입안자로 활동하도록 준비시키는 독특한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Perales 장관은 이민자들이 우리 뉴욕주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경제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뉴욕주 ONA(Office for New

Americans)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지사는 Perales씨를 Empire State Development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Perales씨는 또한 다운타운 재활성화 이니셔티브 이행에서 주지사의 무급 자문관으로 계속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